

중국어 동사 수식어의 어순 변천과 그 유형학적 의미*

박 향 란**

<目次>

I. 서론	III. 동사 수식어 후치현상의 유형학적 의미
II. 중고중국어 동사 수식어의 후치현상	IV. 결론

I. 서론

Greenberg(1963)의 어순의 함축적 보편성에 관한 논의는 어순 연구를 유형론의 핵심 주제로 만들었다. 그는 주어(Subject), 동사(Verb), 목적어(Object)의 상대적 순서와 전치사(Preposition) 혹은 후치사(Postposition)의 존재 및 형용사(Adjective)와 명사(Noun)간의 상대적 위치를 토대로 전 세계 30여개 언어에서 45개의 함축적 보편성을 찾아내었다.¹⁾ 예컨대 전형적인 SVO언어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수식어가 중심어 뒤에 출현하지만 SOV언어는 후치사를 사용하고 수식어가 중심어 앞에 출현한다. Lehmann(1973)은 VO/OV어순과 수식어순의 함축적 상관성에 대해 논하였다. 수식어는 기본적인 통사요소를 중심으로 그것이 수반하는 주요 요소의 반대쪽에 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4554)

** 경북대학교 중문과 강사

1) Greenberg는 평서문에서 주어가 목적어 앞에 선행하여(보편성-1) VOS, OSV, OVS유형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VSO, SVO, SOV유형을 주로 검토하였다.

치하는데 VO언어는 동사가 수반하는 목적어의 반대쪽 즉 동사어근 앞에 의문, 부정, 가능, 사역 등의 한정사가 위치하고, OV언어는 동사어근 뒤에 출현한다. 명사 수식어의 배치 원리 역시 이와 동일하다. 이런 배열은 OV언어가 교착어가 되고 VO언어가 굴절어가 된다는 형태론과 음운론적인 함축들과 연결된다. Greenberg가 대체로 공시적 관점에서 어순 유형론을 논하였다면 Lehmann은 통시적 관점을 도입하여 어순의 배열과 언어 형태의 발전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런 유형론적 성과는 곧바로 7~80년대 중국어 어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어는 고립어으로써 형태 변화가 없고 격표지도 전무하기 때문에 어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순 유형론에 근거하면 현대중국어는 SVO와 SOV어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²⁾ 예를 들어 SVO어순으로 전치사를 사용하지만 동사나 명사의 수식어가 중심어 앞에 출현하는 SOV어순의 특징도 가진다. Li & Thompson(1974)은 이런 어순의 불일치는 현대중국어가 SVO에서 SOV어순으로 변해가는 중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동사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전치, 把구문과 被구문의 생성, 복합어(Compound), 후치사(Postposition), 동사 접미사(Verbal Suffix)의 출현을 제시하였다. 또 이는 중국어 내부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복문을 구성하는 첫 번째 동사가 격표지 혹은 전치사로 발

2) 아래 표는 찰스.N.리·산드라.A.툼슨(1989/1996), Hilary Chappell, Ming Li, Alain Peyraube(2007)를 참조하였다.

SOV유형의 특징	SVO유형의 특징
a. SOV형식의 문장이 있다.	a. SVO형식의 문장이 있다.
b. 관계절이 명사에 선행한다.	b. 조동사가 동사에 선행한다.
c. 형용사가 명사에 선행한다.	c. 동사가 전치사구에 선행한다.
d. 후치사가 있다.	d. 전치사가 명사에 선행한다.
e. 부사가 동사, 형용사에 선행한다.	e. 동사 뒤에 방법, 결과, 정도보어가 온다.
f. 속격이 명사에 선행한다.	f. 복문의 어순은 거의 SVO이다.
g. 수사-양사-명사의 어순을 갖는다.	
h. 전치사구가 동사 앞에 놓인다. (시간구, 처소구는 예외)	

전되면서 단문의 SOV어순이 과생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Hashimoto(1975)는 중국 남북방 방언의 음운·형태·통사적 특성을 비교 대조하여 남방방언은 수식어가 후치되는 타이어의 어순과 유사하고, 북방방언은 수식어가 전치되는 알타이어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SOV어순의 증가를 북방 알타이어족의 접촉과 관련지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현대중국어가 SVO어순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Timothy Light(1979)는 중국어 동사와 목적어 어순은 상고부터 현대까지 어떤 변화도 없으며 무표적 상황에서 SVO어순을 고수하며 단지 전치사구의 위치와 동사에 대한 명사·부사의 위치관계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상고중국어에 없던 위치의존적 의미규칙(the rule of positional meaning)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³⁾ Li, Meng-Chen(1979)역시 중국어의 지배적 어순은 SVO이며 Li & Thompson(1974)이 제시한 把구문, 被구문 등은 동사 앞의 수식어인 전치사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고대중국어에 존재하던 수식어-피수식어 구조의 연장으로 SOV어순으로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⁴⁾ 한편 Chao-Fen Sun & Talmy Givon(1979)은 정량적 통계 분석을 통해 목적어의 한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어는 구어와 서면어에서 VO어순이 90%를 넘으며, OV어순은 강조나 대조를 위한 담화 장치임을 밝혔다. 또 屈承熙(1983)는 중국어가 갖는 SOV특징은 어순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며 보어와 주제화의 흥기가 어순 변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위의 연구결과를 보면 중국어 어순연구는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과 수식

-
- 3) 그에 따르면 명사와 부사의 의미는 그 위치가 주요동사에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동사에 선행하는 시간사는 시점을, 후행하는 시간사는 지속시간을 나타내며 동사에 선행하는 장소구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후행하는 장소구는 행위의 결과로 어떤 대상이 위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또 묘사성 부사가 동사에 선행하면 행동주를, 후행하면 행위의 방식을 가리킨다.
- 4) Li & Thompson(1974)은 ‘把’나 ‘被’를 일종의 격 표지로 보아 목적어가 전치되는 OV어순으로 간주하였지만 Li, Meng-Chen(1979)은 ‘把’구문을 동사 앞에 출현하는 전치사구 즉 동사 수식어의 일종으로 보고 중국어의 무표적 어순은 어떤 변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어와 중심어간의 상대적 어순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량사를 제외한 명사구의 수식어순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논의는 동사 뒤에 출현하던 전치사구, 비교표지 등이 동사에 전치되는 현상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동사 수식어의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이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고시기 동사 앞에 출현하던 다양한 수식어들이 중고시기 이후 점차 동사 뒤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동사와 관련된 이 두 상반된 어순의 발전은 중국어 유형변화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함께 논의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 중국어가 SVO에서 SOV어순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동사 후행성분들의 전치현상만 다뤄온 측면이 있다.

본고는 중국어사에서 동사 앞의 수식성분이 동사 뒤로 후치되는 현상을 고찰해보고 이것이 유형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 결국 중국어 어법체계에서 보어의 발전이 어순 변천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어사에서는 보어를 단순히 중고시기 새로 생겨난 어법현상의 하나로 간주하였지만 실제로는 상고시기 동사 앞에 출현하던 부사, 시간사, 조동사 등이 동사에 후치되어 보어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어 부사어와 중고 중국어 시기 보어의 위치이동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런 어순변화는 중국어가 유형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던 중고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본고는 선진시기와 동한 및 위진남북조 시기 문헌 비교를 통해 동사 수식어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어 어순에 끼친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에 제시한 예문은 인용을 제외하고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코퍼스 및 대만 중앙연구원 고대중국어와 근대중국어 코퍼스를 이용하였다.

II. 중고중국어 동사 수식어의 후치현상

1. 동량표현의 후치

상고시기에는 동작이나 행위의 횟수를 표현하기 위해 수사가 동사 앞에 출현하는 ‘수사+동사’의 형식을 사용하였다.⁵⁾ 이는 현대중국어에서 동량사와 수사가 동사 뒤로 이동하여 ‘동사+수사+동량사’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수사+동사’ 형식은 현대까지 주류를 차지한다.⁶⁾

- ① 吾日三省吾身。(《論語·學而》)
나는 날마다 세 번 스스로를 반성한다.
- ② 宋殤公立, 十年十一戰。(《左傳·桓公二年》)
송상공이 십년간 재위하면서 열 한번 전쟁이 일어났다.
- ③ 豫讓拔劍三躍而擊之。(《史記·刺客列傳》)
예랑이 검을 빼고 세 번 나아가 그를 찔렀다.
- ④ 乃令永巷囚戚夫人, 而召趙王。使者三反。(《史記·呂太後本紀》)
永巷에 척 부인을 가두고 趙王을 불렀으나 사자가 세 번이나 돌아왔다.

예문①에서 수사 ‘三’은 동사 ‘省’앞에 쓰여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며 반복되는 미완료적 상황에 쓰였다. 예문②는 수사 ‘十一’이 동사 ‘戰’앞에 출현하며 이미 발생한 동작 또는 행위의 횟수에 쓰였다. 예문③~④ 역시 한대에 출현하는 예문으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

한대에는 ‘수사+동사’ 형식에 비해 숫자는 한정적이지만 ‘동사+수사’ 형식도 나타났다. 唐鈺明(1990)은 양한시기 《史記》와 《漢書》에서 이런 형식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위진남북조 시기 동량사가 생겨나면서 ‘동사+

5) 唐鈺明(1990)에 따르면 선진시기 11개 문헌 중 ‘수사+동사’ 형식이 94%를 차지하고 ‘동사+수사’ 형식은 6%를 차지한다.

6) 張楨, 《漢語語序的歷史發展》,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0, 182쪽.

수사+동량사'의 어순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수사+동사'가 '동사+수사'로 어순 변화를 거쳐 다시 '동사+수사+동량사'의 형식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 ⑤ 今大赦女鞭女五百, 罰女三百鍰。(《剩匪》)
지금 너를 매 오백 대에 석방하고 벌금으로 삼백 환을 물린다.
- ⑥ 親射王宮, 鞭荊平之墳三百。(《呂氏春秋·孝行覽》)
친히 왕궁에 왕립하여 荊平의 묘를 삼백대 때렸다.
- ⑦ 主父大怒, 答之五十。(《史記·蘇秦列傳》)
趙雍이 화를 크게 내고 그에게 오십대를 때렸다.
- ⑧ 出其屍, 鞭之三百, 然後已。(《史記·伍子胥傳》)
시체를 꺼내 삼백 번을 때린 뒤에야 멈추었다.

위의 예문을 자세히 보면 일종의 이중목적어 구조처럼 보인다. 출현하는 동사가 대부분 '鞭', '罰', '答'과 같이 처벌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뒤에는 처벌행위를 받는 대상이 간접목적어로 출현하며 직접목적어로 동작의 횟수가 출현한다.

한대에는 이미 동량사가 출현하여 '수사+동량사' 형식이 생겨난다. '수사+동량사' 형식은 동사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 ⑨ 太子擊前誦恭王之言, 誦三遍而請習之。(《說苑·敬慎》)
태자 격(擊)이 나아가 초나라 공왕의 말을 외우고, 세 번 반복하여 배울 것을 청했다.
- ⑩ 從者擊亭卒數下。(《風俗通演義·窮通篇》)
하인이 장졸을 여러 대 때렸다.
- ⑪ 夜有盜之者, 數過提舉, 竟不能動。(《高僧傳·譯經篇》)
밤에 도둑이 몇 번 들어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 ⑫ 行雲數番過, 白鶴一雙來。(庾信·全北周詩)
구름이 몇 번 흘러가고 흰 두루미 한 쌍이 오네.

예문⑨~⑩은 수사와 동량사가 결합하여 동사 뒤에 출현한 것으로 현대 중국어 동량사구조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이때 목적어는 대부분 동량사 앞에 나타난다. 예문⑪~⑫는 수사와 동량사가 동사 앞에 출현한다. 두 형식은 동사와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의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수사+동량사+동사’ 형식은 당대까지 볼 수 있었지만 현대중국어로는 계승되지 못하고 ‘동사+수사+동량사’ 형식에 의해 대체되었다.⁷⁾ 아래는 張禕(2010)이 동량표현 방식에 대해 빈도 조사를 수정한 것이다.

<표 1> 한대에서 원명청시기 동량표현 방식의 출현현황⁸⁾

	수+동	동+수	수	수+동량+동	동+수+동량	수+동량
한대	154(86)	9(5)	8(4)	0(0)	8(4)	1(1)
육조	124(52)	2(0.8)	2(0.8)	35(15)	45(18)	31(13)
만당	22(14)	3(2)	0(0)	22(14)	89(59)	16(11)
송대	183(17)	5(0.5)	1(0.1)	94(9)	655(62)	117(11)
원명	10(5)	8(4)	0(0)	29(13)	162(75)	7(3)

위의 표를 보면 한대이후 점차 동량표현이 후치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張禕(2010)은 唐鈺明(1990)이 제기한 ‘동사+수사’의 형식이 ‘동사+수사+동량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반대하고 대신 위진남북조 시기 동량사가 발전하면서 ‘수사+동량사+동사’와 ‘동사+수사+동량사’로 두개의 형식으로 발전되었고 후에 ‘동사+수사+동량사’ 형식이 우세를 차지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시량표현의 위치에 대한 유추로 상고시기 시간사 역시 동사 앞과 뒤 모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사 앞에 시간사가 출현하는 경우 주로 비실제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동사 뒤에 출현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사건을 나타낸다.⁹⁾

7) 太田辰夫(蔣紹愚, 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1987, 153쪽.

8) ()안은 %를 나타낸다.

- ⑬ 由今之道，無變今之俗，雖與之天下，不能一朝居也。(《孟子·告子下》)
지금의 도로써 세속의 변화가 없다면 천하를 주더라도 하루아침도 지낼 수 없다.
- ⑭ 子強、息桓、子捷、子駢、子孟帥左師以退，吳人居其間七日。(《左傳·襄公二十五年》)
子強, 息桓, 子捷, 子駢, 子孟이 좌사를 이끌고 물러나니 吳人이 그 사이에서 칠일을 보냈다.
- ⑮ 與聞國政三月，粥羔豚者弗飾賈。(《史記·孔子世家》)
공자가 정사를 도모한지 삼개월 동안 양과 돼지를 파는 사람이 값을 속이지 않았다.
- ⑯ 於是王怒，系伍被父母，囚之三月。(《漢書·伍被傳》)
왕이 노하여 伍被의 부모를 묶고 삼개월 동안 가두었다.

예문⑬에서 시간사 ‘一朝’는 동사 ‘居’앞에 출현하며 비실제적인 가정의 문맥에서 사용되었으며 예문⑭는 시간사 ‘七日’이 ‘居’ 뒤에 출현하며 실제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규칙은 한대까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다. 한대 예문⑮~⑯에서 시간사 ‘三月’은 동사 ‘聞’과 ‘囚’ 뒤에 쓰여 사건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낸다. 이때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 시간사는 목적어의 한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후행한다.

이와 같이 동량성분과 시량성분은 동사 앞뒤에 출현하는 것을 보면 평행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시량성분 역시 동량표현과 마찬가지로 선진시기에는 동사 앞과 뒤에 모두 올 수 있으나 한대에 이르러 동사 후치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張楨(2010)은 왜 한대 이후 시간사나 동량사가 동사 전치보다 후치 어순이 우세하게 되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동한 및 위진남북조 시기 이래로 중국어 유형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또 ‘동사+수사+동량사’ 형식이 V+O+O의 이중

9) 太田辰夫(蔣紹愚, 徐昌華譯), 《中國語曆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1987, 153 쪽.

10) 張楨(2010:193)에 따르면 한대에 시간사가 동사 뒤에 오는 비율이 91%를 차지한다.

목적어 혹은 V+O+V의 겹어식 구조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시간사나 동량사와 같은 보어성분이 후대에 갈수록 점차 목적어 뒤에서 동사 뒤로 이동하여 V+C+O구조로 정착되었다.

2. 상태, 가능표현의 후치

현대중국어에서 보어는 때때로 결과보다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極’는 상고시기 동사 앞에서 부사로 자주 쓰이지만 현대 중국어에서 정도의 심함을 나타내는 보어로도 쓰인다. 蔣紹愚(2004)는 일찍이 동보구조의 생성에 대해 논하면서 선진시기 ‘盡V’가 ‘V盡’으로, ‘誤V’가 ‘V錯’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는 고대중국어에서 동사 앞에 사용되던 성분들이 동사 뒤로 이동하는 현상을 통해 중국어가 우 핵심(right headed)에서 좌 핵심(left headed)으로 변했다면 그 동인이 무엇인지? 연동구조에서 동보구조로의 전환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 중고중국어 시기 동사 앞의 부사나 조동사가 후치되는 현상은 보어의 발전에 관건적인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得’는 후치되어 결과보어로 쓰이거나 가능과 상태를 나타내는 구조조사로도 쓰인다. 원래 ‘得’는 선진시기 동사 앞에서 쓰여 획득이나 가능의 의미를 나타냈다. ‘不得’는 획득의 실패 혹은 불가능을 의미한다.

⑰ “裏仁爲美。擇不處仁，焉得知？”(《論語·裏仁》)

마을은 인한 것이 아름답다. 인에 거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⑱ “王之所大欲可得聞與？”(《孟子·梁惠王上》)

왕이 염원하는 바를 들을 수 있습니까?

⑲ 然而不得富而得貧，不得衆而得寡，不得治而得亂，則是本失其所欲，得其所惡。(《墨子·非命》)

그러나 부를 얻지 못하여 가난해지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적은 것을 얻고, 다스려지지 못하고 어지러워지면 원래 원하는 바를 잃고 싫어

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

- ㉑ 民既專一，則勇者不得獨進，怯者不得獨退。(《孫子·軍爭》)

백성은 한결같이 용감한 자는 혼자 나설 수 없고 비겁한 자는 혼자 후퇴할 수 없다.

예문⑰~⑳에서 ‘得’은 ‘知’앞에서 동작의 실현 혹은 기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인다. 반면 예문㉑처럼 ‘不得’은 ‘얻지 못하다’의 동사로 쓰이거나 예문㉒처럼 불가능을 나타낸다. ‘획득이나 실현’과 ‘가능’은 문맥적 상황에 따라 서로 연결되며 미완료 상황에서 획득의미가 가능으로 변한다. ‘得’는 중고중국어 시기 전후로 동사 뒤로 이동한다.

- ㉒ 漢將別擊布軍洮水南北，皆大破之，追得斬布翻陽。(《史記·高祖本紀》)

한나라 장수가 경포의 군사를 洮水의 남북쪽에서 격파하고 부수고는 경포를 추격하여 翻陽에서 참하였다.

- ㉓ 前事武帝，覺捕得侍中謀反者馬何羅等功侯，三千戶。(《史記·建元以來侯者年表》)

예전 무제가 시중으로 반란을 피한 馬何羅 등 제후 삼천호를 잡아들였다.

- ㉔ 謂妊娠之時，遭得惡也。(《論衡·第六》)

임신했을 때 나쁜 것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 ㉕ 世或有謂神仙可以學得，不死可以力致者。(嵇康《養生論》)

세상에서 신선이라 부르는 자를 배울 수 있다. 죽지 않고 힘으로 도달하는 자이다.

예문㉑~㉒는 ‘得’가 연동구조의 두 번째 동사로 ‘追得’, ‘捕得’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의 획득을 의미한다. 예문㉓처럼 ‘得’뒤에 추상명사가 오면서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예문㉔ 역시 지식의 획득을 의미하며 미완료적 상황에서는 가능의미가 드러난다. 아래는 당대 예문이다.

- ㉖ 氣象四時清，無人畫得成。(唐·方幹《處州洞溪詩》)

사계절 날씨가 좋아서 아무도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 ⑳ 我兒若修得倉全，豈不是於家了事？（《敦煌變文集·舜子變文》）
만약 우리 아이가 헛간을 잘 고친다면 어찌 일을 잘하는 게 아니겠는가?
- ㉑ 二將當時夜半越對，諍得皇帝洽背汗流。（《敦煌變文集·漢將王陵》）
두 장수가 한밤중에 황제를 예정없이 대면하니 황제가 놀라서 등에 땀이 맺혔다.
- ㉒ 駿馬雕鞍穿鎖甲，旗下依依認得真。（《敦煌變文集·捉季布傳文》）
준마에 조각된 안장, 쇠사슬 갑옷을 입고 깃발 아래 의연히 알아볼 수 있겠다.

위의 예문에서는 ‘得’뒤에 다른 술어성 성분이 출현한다. 예문㉑~㉒에서 ‘得’는 미완료적 상황에서 뒤 성분의 획득이나 가능을 의미한다. 혹은 예문㉑~㉒처럼 ‘得’는 자동사나 형용사 등의 술어성 수식성분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得’는 가능을 의미하는 보어에서 동작의 상태나 결과를 이어주는 정도보어로도 사용된다.

중고시기 ‘得’의 부정형인 ‘不得’ 역시 동사 앞에서 동사 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蔣紹愚(1995)는 ‘V不得’는 가능표지의 부정형인 ‘不得’가 술어동사 뒤로 후치되어 생겨났고, ‘VO不得’는 동한시기부터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趙長才(2002)는 현대 ‘V不得’형식은 동사와 ‘不得’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아 동보구조가 아니라 연동구조로 보았다.

- ㉓ 今壹受詔如此，且使妾搖手不得。（《漢書·外戚傳下》）
지금 조서를 받고는 첩에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 ㉔ 尋求老父不得，議者以爲神。（《水經注》）
노부를 찾았으나 실패하여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다.
- ㉕ 越王子搜，逃乎丹穴，越國無君，求王子搜不得，從之丹穴，不肯出，越人薰之以艾。（《藝文類聚》）
월왕자 搜가 단혈로 도망가자 나라에 임금의 없어져 찾지 못하자 단혈로 쫓아가 나오지 않자 월인들이 쑥을 태웠다.
- ㉖ 復見兩孫來，扶持伯。伯乃急持，鬼動作不得。（《搜神記·卷十六》）
다시 두 손자가 보고는 와서 진거백을 부축하였다. 거백이 급히 잡으니

귀신이 꿈쩍하지 못했다.

예문⑳~㉑은 ‘不得’가 동사와 목적어 뒤에 ‘VO不得’의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예문㉒는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아 동사와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함을 볼 수 있다.

‘V得’와 ‘V不得’는 모두 동작의 달성 혹은 가능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동사 앞에 출현하던 ‘得’, ‘不得’가 동사 뒤로 이동하면서 생겨났다. 동한 및 위진남북조 시기를 기점으로 하며 보어가 발전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밖에 선진시기 주로 시제부사 혹은 동사로 쓰이던 ‘已’, ‘却’, ‘竟’, ‘將’ 등도 중고시기를 거치면서 ‘V+(O)+C’의 위치에 나타나 결과보어로 쓰이다가 V+C+O형식으로 완료, 완성을 나타내는 동태조사로 쓰였다.¹¹⁾ 이 역시 동사 수식어순의 후치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중고시기 부사의 보어로의 전환이 상당한 범위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방향표현의 후치

현대중국어에서는 방향동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대중국어에서 방향동사는 동사 앞에 자주 출현한다. 魏兆惠(2008)에 따르면 갑골문과 《尚書》에서는 대부분 방향동사가 연동문의 첫 번째 동사로 출현한다. 張敏·李予湘(2009:238-248)역시 《左傳》에서 ‘來V’, ‘入V’, ‘出V’, ‘往V’, ‘反V’, ‘還V’, ‘歸V’, ‘進V’, ‘退V’와 같이 연동문의 첫째 동사로 방향동사가 오는 경우가 많음을 밝혔다.

- ⑳ 來歸自鎬, 我行永久。(《詩經·六月》)
鎬에서 돌아오니 내가 떠난 지도 오래되었구나!
- ㉑ 公父定叔出奔衛。(《左傳·莊公十六年》)
公父定叔이 위나라로 도망갔다.

11) 曹广顺, 《近代汉语助词》, 语文出版社, 1995, 10-72쪽.

- ㉔ 成公元年，梁伯、芮伯來朝。(《史記·秦本記》)
 成公 원년에 梁伯과 芮伯이 조문왔다.
- ㉕ 隨何往說九江王布，布果背楚。楚使龍且往擊之。(《史記·高祖本紀》)
 隨何が 구강왕 경포에게 유세하러가니 경포가 과연 초나라를 배반하였
 다. 초나라가 龍且를 보내 공격하게 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연동구조로 동작의 선후관계를 나타내고 앞의 방향 동사는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고, 뒤의 동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일종의 수식어+피수식어의 관계를 갖는다. 이때 방향동사는 주어의 능동적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한대이후 점차 연동구조의 두 번째 동사로 출현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 ㉖ 司馬夜引袁盎起。(《史記·袁盎列傳》)
 사마가 밤에 원앙을 끌고 왔다.
- ㉗ 君爲我呼入，吾得兄事之。(《史記·項羽本紀》)
 당신이 나를 위해 불러오시오. 내가 형으로 섬길 것입니다.
- ㉘ 孔子曰：“取書來，比至日中何事乎？”(《論衡·別通》)
 공자가 “책을 가져오라, 정오까지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 ㉙ 如武帝之心，雖知土龍非真，然猶愛好感起而來。(《論衡·亂龍》)
 무제의 마음처럼 비록 토룡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도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예문㉖처럼 방향동사가 연동구조에 나타나는 경우 동작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목적어를 동반하는 경우 뒤에 방향보어는 목적어 뒤에 출현하여 동작 진행방향을 나타낸다. 또 예문㉙와 같이 일부 상용 방향동사는 목적어가 추상명사 등이 출현하여 이동방향에서 좀 더 추상적 의미를 띄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예문이다.

- ㉚ 命取將來，乃小豆也。(《顏氏家訓·勉學》)
 가져오라 명하니 바로 작은 콩이었다.

- ㉔ 車騎大怒, 催使持去。(《世說新語·賢媛》)
車騎가 노발대발하며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 ㉕ 然出戶去, 不復使人思。(《世說新語·賞譽》)
그러나 집을 나가면 다시 생각나지 않는다.
- ㉖ 庾公乘馬有的盧, 或語令賣去。(《世說新語·德行》)
庾公이 타는 말에 的盧라는 흉마가 있어 혹자에게 말해 팔게 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도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동사와 직접 연결되는 방향동사는 동사 뒤에서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거나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예문처럼 ‘來’와 ‘去’와 같은 상용되는 방향동사는 근대중국어시기이후 동사 뒤로 이동하면서 상표지 기능을 하는 시대조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III. 동사 수식어의 후치 현상의 유형학적 의미

현대중국어가 고립어의 전형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상고중국어는 굴절과 파생의 범주를 갖는 혼합어에 가까웠다. 王力(1989:41)은 상고중국어는 1·2인칭 대명사가 격 굴절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백은희(2010)역시 앞선 商代에 대명사의 격과 수체계가 질서정연하게 분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상고시기 대명사의 격 굴절을 원시중국어 SOV어순의 잔재로 보고 있다. 이는 고대중국어에서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전치된 상태로 유지된 것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중국어의 뿌리로 알려진 한장어계 역시 SOV어순으로 알려져 있어 원시중국어가 SOV어순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고시기로 오면서 중국어에 격 체계와 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소실되면서 SVO어순으로 변하였다.¹²⁾ 하지만 상고시기에는 사동용법과 같이 음 변화에 따른 파생과 굴절어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12) 박정구,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의 유형적 변화와 문법 체계의 발전>, 《일본어문학연구》 제94집, 2015, 37쪽.

특정구문에서 SOV어순이 존재하며 명사와 동사 수식어순에 있어서도 SOV어순을 따른다.

그러나 동한 및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러 중국어는 유형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魏培泉(2003:75)에 따르면 이시기 형태적으로 굴절과 같은 사성변화와 격 표지가 소실되면서 복합사나 접사로 대체되었고, 어순상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어가 종합적 언어에서 좀 더 분석적 언어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아래는 그 중 중국어 어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항목이다.

- a. 판단문 중에 계사 ‘是’가 반드시 필요하다.
- b.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대명사가 후치되었다.
- c. 복합어가 증가하였다.

먼저 상고시기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대명사 전치현상이 소멸된 것은 명백히 SVO어순의 확대를 의미한다. 한대 이래로 부정문 앞에 도치되는 대명사가 먼저 동사에 후행되고 이어서 의문문의 대명사도 뒤를 따른다.¹³⁾ 이처럼 중고시기 기저어순으로 도리어 SVO어순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때 Li & Thompson(1974)의 주장처럼 중국어가 SVO에서 SOV어순으로의 변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판단문에서 계사가 필수적인 것 역시 SOV어순 강화의 근거가 된다. 원래 고대중국어의 판단문은 동사 없이 문말어기조사 ‘也’를 사용하다가 ‘是’가 지시사에서 동사로 변화되면서 SVO어순으로 정착되었다. 石毓智·李訥(2001)는 중고시기 계사 ‘是’의 출현은 중국어가 SVO 언어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고시기 복합사의 증가는 동사 수식어의 증가를 의미하고 곧 보어체계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어가 하나의 중심동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통사적 규칙의 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한 및 위진남북조 시기는 현대중국어

13) 馮勝利, 《漢語的音律、詞法與句法》, 北京大學出版社, 2009 《중국어의 운율과 형태·통사》, 역락, 2013, 227쪽.

나아가는 시발점으로 SVO어순이 더욱 정착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동사 수식어의 후치현상도 결국 SVO어순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유형론적으로 어떤 언어가 OV어순을 사용하면 부사는 동사 앞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VO어순을 사용한다면 부사는 동사 뒤에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SVO어순인 영어는 ‘빈도’와 ‘양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사 뒤에 부사가 놓인다. 반면 SOV어순인 한국어의 경우 모든 부사어가 동사 앞에만 놓인다. 중국어 수량보어, 결과보어, 정도보어 및 방향보어 등이 나타내는 의미는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주로 부사어에 의해 표현된다.¹⁴⁾ 중국어도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부사어는 상고시기 대부분 동사 앞에 놓였다. 그러나 중고중국어 시기전후로 영어나 한국어의 부사어에 대응되는 여러 부사성분이 동사 뒤에 보어로 출현하게 되었다. 즉 중국어 보어는 일종의 후치 부사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중국어 문법체계 내에서 전치부사어와 후치부사어가 함께 존재하는 셈이다. 중고시기 중국어가 SVO어순으로 발전되면서 동사에 부가되는 수식성분이 전치에서 후치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수량성분의 후치현상을 보면 고대중국어 시기 동작의 횟수를 표현할 때 ‘수사+동사’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동한 및 위진남북조 이래로 동량사가 생성되면서 ‘동사+수사+동량사’ 형식을 사용하였다. 선진시기 동사 앞의 시간사도 한대 이래로 동사 뒤로 이동하였다. 이때 두 구조에서 목적어가 나타나는 경우 시간사와 동량사 앞에 출현한다. 이런 구조의 발전은 이중목적어구조의 유추로 볼 수 있으며 이는 SVO어순과도 연관된다. 위진남북조 시기를 지나면서 수사와 동량사가 직접목적어처럼 기능하면서 간접목적어 뒤에 나타난다. 좀 더 후대에 동량성분 및 시량성분은 비한정 목적어 앞에 출현하게 된다. 이밖에 결과나 정도보어·가능, 방향표현이 후치되는 현상은 복합사의 증가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결과나 정도보어

14) 조희무, 안기섭, <중국어의 주요 기본 어순과 유형론적 특징- 부사어 어순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영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인문과학》제29집, 2005. 97쪽.

는 결국 동사 뒤에 부가어로 문장에서 문말 초점이 위치하는 곳이다. 예컨대 ‘정도보어’를 사용하면 ‘정도’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체로 SOV어순인 핵말 언어는 목적어에 초점이 오고 SVO어순에서는 동사에 온다. 즉 복합사의 증가는 동사에 초점을 줌으로써 SVO어순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럼 중고중국어 시기 장소구와 같은 전치사구와 비교표지가 전치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까?¹⁵⁾ 대개 현대 중국어 부사와 보어는 위치 의존적 원리(the rule of positional meaning)와 도상성(iconity) 즉 시간순서원칙(the principle of time sequence)에 따라 의미가 정해진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사는 동작의 방식이나 배경을 나타내고 보어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어가 격표지와 같은 형태 표지가 사라지면서 대신 성분들의 위치배열에 따른 통사적 관계가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형태가 발달된 언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허사의 작용이 크지 않지만 중국어와 같이 형태표지가 부족한 언어는 어순이 비교적 고정적이고 허사의 작용이 두드러진다. 때문에 도상성은 어순을 배열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항상 동사 앞에 나타나는 문장부사, 범위부사, 시간부사 등은 원래 동사보다는 주어 혹은 문장과 의미적으로 더욱 긴밀하다. 따라서 단순히 중국어 부사어가 동사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SOV어순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기저어순이 SVO임에도 중국어의 명사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출현하는 점과 같다. 중고시기 비교표지, 장소표지 등의 전치현상은 중국어가 복합어가 증가하고 동사 뒤에 하나의 초점만 오게 되는 화용적 필요 등 동사 중심의 언어가 되는 동사구조의

15) 何樂士(2009:295)는 선진시기 문헌과 서한시기 《史記》를 비교하여 전치사구와 동사 위치에 따른 통계를 도출하였는데 《左傳》에서 전치사구가 동사 앞에 위치한 예는 2,228개, 동사 후에 위치한 예는 3,570개로 선진시기 전치사구는 일반적으로 동사 후치였다. 그러나 《史記》에서는 전치사구가 동사 앞에 위치한 예가 1,464개, 동사 뒤에 위치한 예는 469개로 전치사구는 대체로 동사 앞에 나타난다.

어순 재편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다. 즉 복합어의 증가로 뒤에 동사 뒤에 다른 성분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동사 뒤의 수식어가 동사 앞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것이 동사 수식어의 전치 현상으로 나타난다.

李訥·石毓智(1998)는 V+O+(X)의 X위치에 있던 보어가 V+(X)+O로 위치가 이동하면서 목적어 뒤에 다른 성분이 올 수 없도록 유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즉 하나의 문장에서 두 개의 술어성 성분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목적어 뒤의 술어성 성분이 전치되어 보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순서를 따져보면 상고시기 원래부터 X위치에 있던 전치사구, 비교표지는 동사 앞으로 전치되었고 대신 앞서 보았듯이 형용사, 시간사, 수량사, 혹은 ‘得’, ‘不得’와 같이 동사 앞에 출현하던 성분은 목적어 뒤 X위치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동사 뒤로 이동하게 되었다. (X1)+V+O+(X2)구조에서 앞의 성분(X1)은 먼저 목적어 뒤에 출현하다가 다시 동사 뒤로 이동하고 동사 뒤의 성분(X2)는 동사 앞으로 전치되어 (X2)+V+(X1)+O구조를 갖는다. 이로 인해 (X1)성분이 동사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단문의 SVO어순이 강화된다. 이 시기는 동한 및 위진남북조 시기를 전후로 가속화된다.

IV. 결 론

현대중국어는 SVO어순이면서 SOV언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언어로 어순 유형론의 보편성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현대중국어의 어순 유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어가 SVO어순에서 SOV어순으로 변하는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들은 대부분 상고시기 동사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구나 비교표지 등의 전치현상 및 ‘把’구문의 등장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고대 중국어에서 동사 앞에 쓰이던 시간사, 수사, 부사, 조동사 등의 여러 수식성분이 중고중국어시기를 전후로 동사 뒤로 후치되는 현상이 존재하

는 것을 통해 중국어가 도리어 SVO어순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있다. 상고중국어 시기 동사 앞에 시간, 동작, 정도, 가능, 방향등을 표현하던 성분들이 한대 이후로 동사 뒤에 출현하는 어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는 중고중국어 시기 판단사의 사용,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대명사 후치현상 및 복합사의 증가와 더불어 SVO어순의 강화와 관련 있다. 중고시기 비교표지, 전치사구의 전치 현상과 수량, 결과, 방향 등의 후치현상은 복합어가 증가하고 동사 뒤에 하나의 초점만 오게 되는 화용적 필요 등 중국어가 동사 중심의 언어가 되는 동사구조의 어순 재편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References>

1. Cao Guangshun. *Jindai Hanyu Zhuci*, language and culture press. 1995.
2.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Park, Jung-ku, Park, Jong-han, Paek, Eun-hee, Choi, Young-ha). *Mandarin chinese*, Seoul: Hanwul Academy, 1989/1996.
3. Cho, Hi-mu & Ahn, Key-Seob. "The principal word order of Chinese and typological character through the comparison of adverbials' order with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Vol.29, (2005).
4. Feng Shengli. *Interaction between morphology, syntax and prosody in Chinese*,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2013.
5. Greenberg, Joseph H. "Some universal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Universals of Language*. London: MIT Press, (1963).
6. Hashimoto, Mantaro J. "Language diffusion on the asian continent:

- problems of typological diversity in sino-tibetan”,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no-tibetan linguistics*, (1975).
7. He Leshi. *Shiji Yufa Tedian Yanjiu*,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2005.
 8. Hilary Chappell, Ming Li, Alain Peyraube. *Typology in China: The State Of The Art*, 2007.
 9. Lehmann, Winfred P. “A structural principle of language and its implications”, *Language* 49, (1973).
 10. Li, Charles N. and S. A. Thompson. “An explanation of word order change SVO→SOV”, *Foundation of language* Vol.12, (1974).
 11. Li Mengchen. “An investigation of word order change in Chinese”, *Yatai Diqu Yuyan Jiaoxue Yantaohui Lunwenji*, (1979).
 12. Light, Timothy.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7, (1979).
 13. Jeon, Jeong-ye. “Typological Comparisons of Chinese and Korean Word Orders”, *Korean Language Research* Vol.32, (2013). Park, Jung-ku. “Retrospect and Prospect of Researchs on Chinese Word Order Typology”, *the Chung Kuk Hak Po* Vol.54, (2006).
 14. Jiang Shaoyu. “Development of “盡V-V盡” and “誤V/錯V-V錯” : Time of Appearance of the VC Construction”, *Language and Linguistics* Vol.3, (2004).
 15. Korea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 *Chinese word order*, Seoul: Songsan Book Company, 1998.
 16. Liu Danqing. “Word Order Typology and Theory of Adposition”, *Yuyan Yanjiu* Vol.1, (2004).
 17. Mei Guang. “Is modern Chinese a real SOV language?”, *Chiers de Linguistique Asie Orientale*, No.7, (1982).
 18. Paek, Eun-hee. “The Change in the usage of personal pronouns in

- Shang-Zhou and its typological meaning”, *Chinese Literature* Vol.64, (2010).
19. Park, Jung-ku. “The Typological Change of Chinese and Its Development of Grammatical System”,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94, (2016).
 20. Qu Chengxi. *The problem of chinese word order and change of word order*, Taipei: Wenhe Book Company, 1983.
 21. Shi Yuzhi & Charles N. Li. *A history of Grammaticalization in Chinese—motivation and mechanisms of evolution of Chinese Morpho-syntax*,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2001.
 22. Sun Chaofen & Talmy Givon. “On the so-called SOV word in Mandarin Chinese: a quantified text study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7, (1979).
 23. Tai, James H-Y. “On the change from SVO to SOV in chinese,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diachronic syntax, CLS, (1976).
 24. Taitian Chenfu(Jiang Shaoyu & Xu Changhua). *Chinese historical grammar*,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87.
 25. Tang Yuming. “Verb measure word in old chinese”, *Research in Ancient Chinese Language* Vol.1, (1990).
 26. Wei Peiquan. *The Important Developments of Grammar from Old Chinese to Middle Chinese*, 2003.
 27. Wei Peiquan. “The Position of the Eastern Han and Six Dynasties in the History of Chinese Grammar”, *Chinese Studies* Vol.18, (2000).
 28. Wei Zaohui. *Serial-verb construction in old chinese*, Shanghai: Sanlian Shudian, 2008.
 29. Xu Dan, *Typological change in Chinese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0. Zhang Cheng. *Historical evolution of chinese word order*, Beijing:

Pek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Press, 2010.

<참고문헌>

1. 曹廣順, 《近代漢語助詞》, 語文出版社, 1995.
2. 찰스 N. 리·샌드라 A. 톰슨(박정구, 박종한, 백은희, 오문의, 최영하 역), 《표준중국어문법》, 한울아카데미, 1989/1996.
3. 조희무, 안기섭, <중국어의 주요 기본 어순과 유형론적 특징- 부사어 어순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영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인문과학》 제29집, 2005.
4. 馮勝利, 《漢語的音律、詞法與句法》, 北京大學出版社, 2009/ 《중국어의 운율과 형태·통사》, 역락, 2013.
5. Greenberg, Joseph H. "Some universal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Universals of Language*. London: MIT Press, (1963).
6. Hashimoto, Mantaro J. "Language diffusion on the asian continent: problems of typological diversity in sino-tibetan",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no-tibetan linguistics*, (1975).
7. 何樂士, 《史記語法特點研究》, 商務印書館, 2005.
8. Hilary Chappell, Ming Li, Alain Peyraube. *Typology in China: The State Of The Art*, 2007. 박정구, <중국어 어순 유형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중국학보》 제5집, 2006.
9. Lehmann, Winfred P. "A structural principle of language and its implications", *Language* 49, (1973).
10. Li, Charles N. and S. A. Thompson. "An explanation of word order change SVO→SOV", *Foundation of language* Vol.12, (1974).
11. Li Mengchen. "An investigation of word order change in Chinese",

- Yatai Diqu Yuyan Jiaoxue Yantaohui Lunwenji*, (1979).
12. Light, Timothy.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7, (1979).
 13. 전정예,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순 비교>, 《말 연구》 제32호, 2013.
 14. 蔣紹愚, <從“盡V-V盡”和“誤V / 錯V”看述補結構的形成>, 《語言及語言學》 2004年 第3期.
 15. 한국중국어학회, 《중국어 어순 연구》, 송산출판사, 1998.
 16. 劉丹青, <先秦漢語語序特點的類型學觀照> 《語言研究》 2004年 第1期.
 17. 梅廣, <現代漢語真的是一種SOV語言嗎?>, 《台靜農先生八十壽慶論文集》, 1982.
 18. 백은희, <商周시기 인칭대명사 용법의 변이양상과 유형학적 의미>, 《중국문학》 제64집, 2010.
 19. 박정구,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의 유형적 변화와 문법 체계의 발전>, 《일본어문학연구》 제94집, 2015.
 20. 屈承熙, <漢語詞序與詞序變遷中的問題>, 《語言學論集：理論, 應用及漢語語法》, 台北: 文鶴出版社, 1983.
 21. 石毓智, 李納, 《漢語語法化的歷程》, 北京大學出版社, 2001.
 22. Sun Chaofen & Talmy Givon. "On the so-called SOV word in Mandarin Chinese: a quantified text study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7, (1979).
 23. Tai, James H-Y. "On the change from SVO to SOV in chinese,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diachronic syntax, CLS, (1976).
 24. 太田辰夫(蔣紹愚, 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1987.
 25. 唐鈺明, <古漢語動量表示法探源>, 《古漢語研究》 1990年, 第1期.
 26. 魏培泉, <上古漢語到中古漢語語法的重要發展>, 《古今通塞：漢語的歷史與發展》, 2003.

27. 魏培泉, <東漢魏晉南北朝在語法史上的地位>, 《漢學研究》 2000年, 第18卷.
28. 魏兆惠, 《上古漢語連動式研究》, 三聯書店, 2008.
29. Xu Dan, *Typological change in Chinese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0. 張楨, 《漢語語序的歷史發展》,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0.

<Abstract>

The questions of word order change has still been much debated during the last decade. This study has conducted a analysis of the word order change of adverb in Chinese and its typological meaning. Li & Thompson(1974) insisted that the direction of word order change in Mandarin Chinese has been SVO→SOV. But we need to reconsider this hypothesis. The adverb order of the old chinese is located before predicates, but the adverb of the Eastern Han Dynasty and Six Dynasti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ld Chinese, some are located after predicates, for instance, verb measure word, direction complement and degree complement. Also the word order of the aspectual markers in Old Chinese also is different from that of Modern Chinese. Grammatical aspect is expressed by pre-verbal adverbs in Old Chinese whereas pre-verbal adverbs in modern chinese. This fact apparently contradicts the assertion of the word order change from SVO to SOV in chinese. In contrast, this study showed that chinese has fixed SVO order.

Key Words : 어순(word order), 유형론(typology), 부사(adverb), 보어(complement)